

## 제102회 제1차 시의회 회의록

1. 개의 : 단기4292년 12월 1일 상오 10시50분
2. 폐의 : 단기4292년 11월 30일 하오 2시5분
3. 장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 재직 16명중 출석의원 15명  
결석 강영락 의원
6. 출석공무원 : 시장 박찬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및 이사무장
7. 의사 일정

### 보고사항

- (1) 제101회 제1,2차 회의록 통과
- (2) 신년도시정방침연설

### 부의안건

- (1) 단기4293년도 목포시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단기4293년도 목포시 동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단기4293년도 목포시 도선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단기4293년도 목포시 공익전당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5) 단기4293년도 목포시 소방시설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6) 단기4293년도 목포시 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7) 단기4293년도 목포시 국민주택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8) 단기4293년도 목포시 재건축주택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9) 단기4293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10) 단기4293년도 목포시 일반회계세출?상예산안(제6회)
- (11) 목포시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개정안

- (12) 목포시 도서관 조례개정안
- (13) 목포시 소방비 특별회계 설치안
- (14) 단기4293년도 목포시 일반회계일시차입안
- (15) 단기4293년도 목포시 수도특별회계일시차입안
- (16) 단기4293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일시차입안
- (17) 단기4293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 8. 토의사항

- 제101회 제1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으므로 통과

- 제101회 제2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찬대 낭독

### ◇ 정응표 의원

- 만호동민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는 법에 저촉되니 기각한 것 같이 되어 있으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의적인 협조를 기울여 주도록 한 것이니 시정하기 바라며, 유증 보건장 문제도 김남진 의원이 제시한 조건을 명시하여 주기 바란다.

(그 외 이의 없으므로 통과)

- 단기4293년도 시정방침 연술

### ◇ 박찬규 시장

- 연설하다

- 각 부의 안전 제안 이유설명

### ◇ 장건식 총무과장

- 시청소관 부의 안전 제안 이유설명이 있었음

### ◇ 김상대 의원

- 의안배부에 있어서 과거에는 개회 10여일전에 배부되었는데 금반에는 작야에 접수하여 이를 검토할 여유가 없었다. 시장의 시정연술에 따르는 정책질의는 오늘 하더라도 예산안에 관련된 질의는 오늘 14일 개최되는 제2차 회

의에서 행함이 가할 것 같다.

◇ 정응표 의원

- 예산관계에 있어서는 대체적인 질의는 오늘 갖기로 함이 가할 것 같다.

◇ 김경인 의원

- 김상대 의원의 의견에 찬성하면서 장총무과장의 제안이유 설명에는 예산의 대체적인 비율을 열거하였으나 제안 서류에는 그 비율표가 없다. 다음 기회에 만들어 주기 바란다.

◇ 김창희 의원

- 정책질의는 금차 회의에 해놓고 그 답변은 14일 관계되는 제2차 회의에 청취토록 할 것을 정식으로 개의

◇ 김성균 의원

- 찬성 발언하다.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 가결)

◇ 김상대 의원연설

(1) 듣는 방에 의하면 명년도 상수도 공사비 보조가 1억6천만 환 받게만 된 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금년도 공사에 설계변경이 심하고 공사비가 감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외국원조자금이 감축되는 경우의 대책여하

(2) 공설시장과 의사당으로 사용했던 공회당이 소진된지 3년이 넘었다. 공회 당으로 복구할 용의는 없는가

(3) 삼학도공사는 현금 40%밖에 진척 안되었다. 정부직영이라고 하나 만약 중단되는 경우의 대책은 여하히 할 것인가

◇ 김창희 의원

(1) 외래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당시는 관광사업에 치중하여 외화획득 을 획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집행부는 등한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 해수욕장을 설치할 방안은 없는가

(3) 영해도의 잔교 증설 용의는 없는가

- (4) 시립병원에 우수한 의사진을 초빙하여 강화시킬 용의는 없는가
- (5) 승소토지 15만평에 대한 시책은 여하히 할 것인가
- (6) 수도중설책에 대한 전망은 여하
- (7) 목포양주회사에서 목포역에 이르는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 (8) 정(庭)시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 (9) 공회당을 건축의 계획을 수립한 일은 없는가
- (10) 도서관 유명무실하다 이의 개선책 여하
- (11) 역전에 하수구의 오물처리 대책을 여하히 할 것인가
- (12) 제1호선 도로포장이 긴급하다 중앙에 절충하여 전력을 경주할 용의는 없는가

◇ 김성균 의원 질의

- (1) 박 시장은 과거 하행정을 어떻게 보며 이를 취사선택 할 용의는 없는가
- (2) 박 시장은 취임시 내세운 시정지표의에 중점을 둔 것은 없는가
- (3) 목포시 번영을 위하여는 당면한 양대사업과 관광사업외에 또 중대사업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 (4) 인사문제에 있어서 요즈음 신문보도에 의하여 구구한 억측이 떠돌고 있으며 향간의 여론은 현 간부진을 무난하다는 관측이 있는데 이리하여도 교체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만약 교체시킬 때 도에서 안받아 드릴 경우 여하히 할 것인가
- (5) 목포시는 정치적으로 다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금년에도 철저한 인구조사를 하여 정확한 인구를 파악토록 할 15만을 초과시켜 민의원 2인이상을 선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 (6) 시가지 확장에 대한 전망은 여하
- (7) 시립병원 관계예산을 특별회계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 김경인 의원

- 박 시장의 시정연술은 매년 되풀이되는 것으로서 101회 의회에서 소개한 바 있는 시정지표와는 전연 판판임으로 지적 아니할 수 없다
- (1) 그리고 관광사업에 치중하겠다고 역설하였는데 이점이 반영 안된 이유는 무엇인가

- (2) 시민의 여론에 부시장을 비롯하여 몇몇 간부들을 교체한다고 하였는데 이의 진부를 해명하여 주기 바란다
- (3) 목포시는 타도시에 비하여 각종 세금의 배시율이 많은데 박 시장은 이를 감세시킬 방안을 간구하여 본 일은 없는가
- (4) 유달산록의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여하

◇ 정응표 의원 질의

- 박 시장은 시정연설은 하 시장이 행하였던 근본내용과 하등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취임당시 역설하였던 3대사업에 대하여 기대에 어긋날 정도로 간단히 지적하였음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고 과거 하행정 보다는 박력있는 아량을 베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소극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본다.

- (1) 상수도 확장공사의 앞으로의 전망여하
- (2) 박 시장의 시정연설에 현재의 격일제 급수를 폐지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 바 이를 해제시킬 용단을 내릴 수는 없는가 그리고 그 시기는 어느 때나 되겠는가
- (3) 산정초등학교 앞도로의 확장책 여하
- (4) 시영공익전당포 운영면에 있어서 집행부는 좀더 노력하여볼 용의는 없는가

◇ 김상대 의원 질의

- (1) 내항준설공사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모종압력에 눌러서 중단되었다고 전문하였는데 이압력을 물리치고 계속할 용의는 없는가
- (2) 선창에 산재한 판자옥을 철거시킬 용의는 없는가
- (3) 선창의 공동변소도 철거할 용의는 없는가
- (4) 목포극장앞에 가설된 영난등의 요금을 시비에서 부담할 용의는 없는가
- (5) 도깨비 시장을 철거시킬 용의는 없는가
- (6) 도서관을 확장시킬 서적을 다량 구입비치할 용의는 없는가

◇ 김남진 의원 질의

- (1) 시내 각 변방동에 공중전화를 가설할 용의는 없는가
- (2) 93년도 상수도 공사 현장 진척현황이 3할밖에 추진안되었다하나 공사연

기를 무의미하게 자행하고 있어 업자가 시를 감독하는 것인지 시가 업자를 감독하는 것인지 분간키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박 시장은 이의 혁신책으로 이후의 공사에 대하여 경쟁입찰에 부할 용의는 없는가

(3) 누수공사의 방지대책여하

(4) 시 직영의 종축장을 설치할 용의 여하

◇ 조양순 의원 질의

(1) 박 시장의 시정연술에 생산부문에 치중한다고 하였는데 그 범위가 무엇인가

(2) 역전에서 군산관에 이르는 도로의 포장 대책여하

(3) 유달산 녹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여하. 달선각에 등산하는 노정에 공동변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4) 그리고 관광시설의 부근 농장에는 금비를 시비하도록 장려하여 주기 바란다

(5) 죽교 1,2 구동의 수도시설은 서부교의 양해를 얻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의 그 정반대인 주객전도 되었다. 서부교급수시설에 대한 대책 여하

◇ 천철수 의원 질의

(1) 상수도 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앞으로의 전망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2) 과거 하 시장은 ?관을 포설시는 재차 수압시험을 한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여하

◇ 김남진 의원

- 산정3구동에 가설하고 있는 소방탱크가 조루하다 이의 설계가 그렇게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그리고 정책질의에 대한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 삼청)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가결

◇ 김상태 의원 긴급동의

- 현금(現今) 여당 측에서는 야당을 공산당 이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 일례로서는 민주당원의 탈당을 중용하는가 하면 방송국에서는 탈당자의 명단을 일일이 발표하고 있으며 자유당의 탈당자도 그렇게 방송으로 발표할 것인지 의아스럽다. 이 방송국의 처사에 대하여 당의 회의결의 규탄하도록 건의할 것을 동의

◇ 김상대 의원

- 이러한 문제를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방송국 상대공격하든지 할 문제라고 본다.

◇ 김삼성 의장

- 부의안건 상정선언

- 단기4292년도 제6회 목포시일반회계 세출경정예산안
- 목포시의회 의원비용변상조례개정안

◇ 장건식 총무과장

- 제안이유를 설명

◇ 김성균 의원

- 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개정안을 도당국의 승인을 얻어 금12월 1일자부터 일비를 인상적용 시키겠다는 것이며 6회 정예산안도 이에 수반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보여지니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무수정통과를 동의

(재청, 삼청)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 가결

- 부의안건 제1항부터 제17항 중 제10항 및 제 11항을 제외한 전 안건 상정 (회의록 전 페이지 참조)

◇ 김경인 의원

- 전기 15안건은 소속전문분과위원회에 회부 심의케 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 가결

· 제13회 시정 감사반 편성의 건

◇ 정응표 의원

- 집행부에 제출한 안에 의하여 3반으로 편성하되 소속반은 각 의원 지원제로 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 가결

각반 지원편성 상황

제1반 정응표, 김상대, 김경인, 조양순, 김남진 각 의원

제2반 김상대, 김창희, 박두순, 김일섭, 김영락 각 의원

제3반 천철수, 이정권, 김성균, 명남철, 임석희 각 의원

◇ 김삼성 의장

- 산회선언

하오 2시 5분 폐의.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4292년 12월 2일

시의원 김상대 김상대

작성자 서기 주도식



## 제102회 제2차 목포시의회 의사록

1. 개의 : 단기4292년 12월 14일 상오 11시40분
  2. 폐의 : 단기4292년 12월 14일 하오 12시40분
  3. 장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 재직 16명
  6. 출석공무원 : 시 교육 위원회 교육감 박세문  
총무과장 장건식 외 각 과장
  7. 의사 일정  
보고사항
    - (1) 제102회 제1차 회의록 통과
    - (2) 청원서접수상황보고 - 공업고등학교
    - (3) 정책질의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
    - (4) 시 교육 위원회 시정방침 연설
  8. 토의사항
    - 제102회 제1차 회의록 통과
    - 서기 박찬대 낭독 - 이의 없으므로 통과
  
    - 청원서 접수 상황보고
    - 목포공업고등학교, 우체국청사불하에 관한 건
    - 서기 박찬대 낭독
- ◇ 김상대 의원
- 소개발언

◇ 정응표 의원

- 보충발언. 본 건 청원의 처결방도로서 당 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골자를 열거하여 당시의회의 결의로 새 체신부장관 및 국회교체분과위원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표결에 부친바 만장일치가결

- 정책질의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

◇ 김상대 의원

- 금차 회의의 의사일정에 정책질의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이 상정되었으나 집행부 장인 시장이 부득이한 용무로 중앙에 출장하신 것 같으니 오는 24일 개최되는 제4차 회의시 청취토록 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가결

◇ 김남진 의원

- 교육위원회 재산인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소재 산림이 벌채되었다 하니 이것이 도별인가 교육위원회의 허가로써 벌채된 것인지 조사위원회를 구성조사할 것을 동의

◇ 김상대 의원

- 중대한 문제라고 본다.  
벌채를 할 때에는 산림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하였을 것이다. 이에 대한 집상을 집행당국에 청취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가결

◇ 박세문 교육감 답변

- 그곳에 교육 위원회 소유 임야 가 50만 정보였는 바 거개적 나산으로서 그 산록에 조금씩 있는 수목은 무안군 산림계 감시원이 지키고 왔던 것입니다. 그전에 듣는 바에 의하면 저녁마다 도별이 극심하여 자칫하면 다소있는 나

무를 전부 도별당할 우려가 있어서 차라리 간별을 하여재산수입이라도 불라고 별채하였던 것입니다.

◇ 김일섭 의원

- 그렇다면 이에 대한 당국의 허가여부를 밝히기 바란다.

◇ 이 사무장 답변

- 군수를 경유 도지사의 정식 허가를 얻은 연후 별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나 이의 별채는 단지 사무적으로만 연락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김남진 의원 동의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가결)

◇ 김삼성 의장

- 조사위원으로 임석희 김남진, 김일섭 의원을 지명

◇ 정응표 의원

- 현재 용당동에 소재한 동 목포 역은 초대 의회시 당국에 건의하여 간이역을 설치하였던 것이나 역사기타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불편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하루속히 보통역으로 승격하여 주도록 교통부장관, 교통체신분과 위원장, 순천철도국장에게 당의회의 결의로써 건의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가결

◇ 김남진 의원

- 시내 평화극장 옆 남선토건사를 요사이 증축하였다는데 이는 시 당국의 허가를 경한것인 여부를 알고 싶으며 이 증축이 소관법규에 저촉된지 여부를 밝혀 주기 바란다. 이 건물 증축으로 말미암아 그 인접수세대는 인분오물등을 거실 혹은 취사장을 통하여 제거시켜야만 된다니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키 위하여 조사 위원 3인정도 구성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 건설과장 답변

-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하여는 허가하여주 기억도 안납니다. 이 문제가 사실이라면 민사문제라고 보아지며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행정 조치도 할 수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삼성 의장

- 조사위원으로 김성균, 김남진, 명남철 3위원을 지명

◇ 김성균 의원

- 의회의사당 벽에 역대시장의 사진이 게시하여 있는데 무의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철거시킬 용의는 없는가.

◇ 장 총무과장

- 즉시 철거시키겠습니다.

· 교육위원회 시정방침 연술

◇ 박세문 교육감

- 연술이 있었음. 별첨내용참조

◇ 김삼성 의장

- 산회선언

(하오 12시 4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4292년 12월 15일

시의원 김상대

시의원 김성균

작성자 서기 주도식

## 제102회 제3차 목포시의회 의사록

1. 개의 : 단기4292년 12월 23일 상오 10시40분
2. 폐의 : 단기4292년 12월 23일 하오 2시
3. 장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 재직 16명중 출석의원 15명  
결석 강영락 의원
6. 출석공무원 : 시장 박찬규 및 각 과장
7. 의사 일정

### 보고사항

- (1) 제92회 제2차 회의록 통과
- (2) 각 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
  - 남선토건관계
  - 교위 산림벌채 관계
- (3) 서울 출장과 보고
- (4) 제13회 시정감사결과보고

### 8. 토의사항

- 제92회 제2차 회의록 통과
- 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으므로 통과.

- 각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 ◇ 김남진 의원

- 교육위원회 산림벌채 관계에 있어서 현지에 출장하였던 결과 본 건 조사대

상의 관건인 산감 이명호가 서울여행 중이라 하여 당사자의 부재중으로 확실한 조사를 밝히지 못하였다.

◇ 김상대 의원

- 벌채를 한 경위에 대하여 도벌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인가 고의적인 행위인가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밝혀 주기 바란다.

◇ 김남진 의원

- 10년생 솔로서 3米(m)간격에 3주(株)씩 서 있는데 심히 무자비한 벌채를 하였다고 보여졌습니다.

◇ 김상태 의원

- 보충보고 있었다. 내용생략

◇ 김삼성 의장

- 전차회의에서 김남진 의원이 발언한 남선토건사 건물증축 관계는 쌍방간에 원만한 타협을 보았다는 서신이 접수되었기로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 정응표 의원

- 교육위원회 소유 산림벌채사건에 대하여 그 결론으로 무허가 벌채한 것은 사실이나 책임의 소재가 석연하지 않는 문제의 핵심을 못 본 조사위원의 보고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 한계를 부여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가결

· 서울출장결과 보고

◇ 김삼성 의장보고

- 금반 출장의 기회에 시장님을 비롯하여 상공회의소 대표, 번영회대표 등과 합세하여 각 부문에 걸쳐 교서절충하였는 바

(1) 철조선 간조문제 해무청 조선과장을 심방하였던 결과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건조하겠으니 조속 설계하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2) 교통부를 방문하여

· 동목포역 승격문제는 순천철도국장에게 전말을 청취 후 조속 승격시키겠

다는 확답을 받았고

· 철도횡단도로 문제도 지방민의 여론조사를 하도록 즉석에서 명령한 것을 보았으며

· 태극호시간 단축 문제는 전남북지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3) 내무부에 들러 상수도 확장공사비 보조관계를 절충하였던 바 금년도 4/4 만기에 1,500만환과 명년도에 4,500만환을 보조하여 줄 것을 약속 받은 바 있으나 하여튼 우리 의결부가 적극성을 띄우고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여야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4) 상공부에 들러 배전문제를 교섭하였던 바 타도시는 전체적으로 감전을 단행하였어도 목포만은 형상유지라도 편의를 봐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 ◇ 명남철 의원 긴급동의

- 국민학교 졸업아동의 진학문제에 대하여 시내 각 중등학교의 수용 능력 실적을 검토하여 본 결과 남자학교는 수용교실의 여유가 있는 반면 여자학교는 진학희망자가 진학을 못하는 형편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1교를 신축하거나 기존학교의 교실 증가를 도모하여야 하리라고 보아지는 바 이의 추진위원으로 시의회에서 5인과 교육위원 중 2인을 선정 추진토록 할 것을 긴급동의

#### ◇ 김경인 의원

- 긴급한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명남철 의원의 동의를 고쳐서 6학급을 수용할 수 있는 여중학교의 유치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긴급사라고 보아지며 광주의 사례지오 중학교나 여중 같은 어느 종교계통의 학교 유치의 가능성 같은 것도 검토하여 봄이 좋으리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 ◇ 정응표 의원

- 명남철 의원의 동의에 찬성한다. 그 이유로는 국가재정상 학급증설은 가능하나 학교의 신축은 난색일 것 같으며 시내중앙여중과 정명여중은 발전의 요소가 다분히 있고 덕인 중학교는 남녀공학이며 목포사범학교에 여중을 병설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을 다각도로 연구검토하여 신설이라고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명의원의 동의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김성균 의원

- 찬성발언

◇ 김남진 의원

- 각 여중학교를 순방상의하여 본 결과 중앙여중과 정명여중은 증축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차라리 목여중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나 년차계획으로 18학급의 증축이 불가능하니 차라리 1개교 신축을 추진하는 것이 가하다고 보아진다.

◇ 김삼성 의장

- 명남철 의원의 동의와 김경인 의원의 의견을 양자 병행함이 좋을 것 같다.

◇ 정응표 의원

- 의장의 의견에 찬성하면서, 추진위원으로는 시의회 3인, 교육감, 교장단에서 1인으로 5인을 구성하도록 동의집에 첨가한다.

- 동의집을 수락

명남철 의원의 동의를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 김삼성 의장

- 의회추진위원으로 명남철, 김성균, 김경인 의원을 지명

◇ 김상대 의원

- 근자 목포일보지상에 유달초등학교 기성회에서 학급당 5만 환씩 징수한다고 보도하였는 바 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교육감을 출석 답변토록 함과 아울러 그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 김삼성 의장

- 조사위원으로 정응표, 김상대, 조양순 의원을 지명



◇ 정응표 의원

- 금차 회의의 의사일정에 제13회 시정감사결과보고가 상정되었으나 감사위원 상호간의 정리가 못되어서 금일은 불가능 할 것 같으니 그 일정을 오는 22일부터 순연토록 할 것을 토의한다.

(재청, 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 김남진 의원

- 근자 모 일간 신문지상에 청내 간부 급대폭 인사이동 설이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 바 집행부의 명량한 인사행정을 기대하는 노파심에서 시장님께 그 보고의 진부를 청취토록 할 것을 동의

(재청, 삼청)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 박 시장 답변

- 본인이 취임직후부터 간부급 이동문제로 걱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는 바이나 인사문제는 시정수행상 필요할 때에는 단행하여야 되리라고 보아지는 바이며 그 동안 복안도 작성하여 도당국도 절충한 것도 사실입니다.

소정법규에는 시장이 임명도 할 수 있고 해면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지사의 승인을 요하게 되는 바 이제는 도와의 합의도 완전히 이루어 졌습니다. 사전에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송구하게 생각도 들어지는 바이나 과장님들 중에는 타처로 진출할 것을 희망하시는 분도 계셨으니 이 정도로 알아주시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상대 의원

- 시장님의 답변이 모호하다요지음 시내인사문제를 둘러싸고 시민의 여론이 비등한가하면 부시장을 시립병원 서무과장으로 좌천시킨다는 등 공산독재국에서도 있을 수 없는 월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의회에서 본 건에 대한 관계당국과의 절충위원을 구성토록 함이 좋을 것 같다.

◇ 김창희 의원

- 김남진 의원의 동의에 의하여 시장은 그 소신을 답변하였다.

인사문제는 어디까지나 비밀이어야 하며 시장으로서 시정상 필요할 때에는 인사이동을 단행한다는 것도 당연한 이치일 것이며 아직 그 시행도 하기 전에 왈가왈부한 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월권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 김경인 의원

- 시장의 답변에 인사이동의 복안에 대하여 도 당국과의 합의도 완전히 보았다고 확답하였으며 시장님 자신의 본의가 아니라는 암시도 받았다. 인사이동을 단행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적재적소를 가려야 할진대 박 시장은 취임 후 10여일간 근무중 그 적재적소를 발견하였는지 의아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인사이동의 범위가 일간지에 보도된 바 와 같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사비밀이 어떠한 경로로 누설되었는지 궁금하다.

시장님의 평소의 인격으로 보아 그러한 인사행정은 안하시리라고 믿어지며 상식과 도의에 어긋나는 짓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은 지방자치행정은 자치법에 의거하여 집행하되 이 집행의 원동력에 불완전이 없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 박 시장 답변

- 인사이동을 하는데 외부의 압력이란 있을 수 없고 인화, 성실, 겸양을 충분히 이룩하도록 노력하여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할 각오입니다.

◇ 김삼성 의장

- 김상태 의원의 발언인 우리 의회에서 5인정도의 대표를 선정하여 시장과도 당국에 절충토록 함이 좋을 것 같다.

◇ 정응표 의원

- 저반 우리 시의회에서 목포출 장병 위문차 논산여행을 하였을 적의 부산물인데 부시장 이병규씨가 시의원들과 논산 동행하는 길에 박 시장의 욕설을 하게 한 것이 그 좌천의 이유중 하나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의원 중 부시장의 말을 듣고 좌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니 오해 없기를 바라는 바이다.

◇ 박 시장

- 정 의원의 발언은 금시초문이며 그러한 곡해는 추호도 없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대 의원

- 민주당 의원들은 인사문제를 자유당 측에서 종용하여 좌우하는 느낌을 가진 것 같으나 오해없기 바라며 본 의원 역시 간부급 이동은 불차녕하는 바이나 하부직원들은 대폭적인 이동이 실현되기를 희구하며 의장의 의견에 찬성하는 바이다.

◇ 김성균 의원

- 인사이동의 억측을 위요(圍繞)하고 시민의 여론은 극도로 악화하여가고 있다.

시장의 측근자 중에는 시민의 여론 그대로를 진언하는 사람은 없고 아부파 밖에 없는 증좌(證左)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청원 전부를 이동시킨다는 것도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라하겠으나 신중 검토하고 숙고하여야 되리라로 보아지며, 부시장을 시립병원으로 좌천시킨다는 것은 너무 무자비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 김창희 의원

- 하 시장은 이 부시장이 적당하였을는지 모르나 신임 시장이 시정상 부적당 할 경우에는 교체시킬 수 있는 일 아니겠는가.

◇ 김삼성 의장

- 시장 및 도 당국 측과 절충요원으로 천철규, 김상대, 김성균, 김상대, 박두순 의원을 지명

◇ 김삼성 의장

- 산회선언. 하오 2시 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 4292년 12월 24일

시의원 김상대

시의원 김성균

작성자 서기 주도식

## 제102회 제4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의 : 단기4292년 12월 26일 상오 10시 25분
2. 폐의 : 단기4292년 12월 26일 하오 12시 50분
3. 장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 재직 16명중 출석의원 15명  
결석 강영락 의원
6. 출석공무원 : 시장 박찬규 및 각 과장  
교육감 박세문

### 7. 의사 일정

#### 부의사항

- 제13회 시정감사 결과보고

### 8. 토의사항

- 제13회 시정감사 결과보고

#### 제1반대표

##### ◇ 정응표 의원

- 시정감사는 어디까지나 비위사실을 적발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 감사라 하겠으나 과거 12회를 통하여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실천 안된 사항이 허다하니 신임간부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기 바란다.

(1)최말단의 인사행정에 공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바 내근직원을 노무원으로 발령하여 36,000환 빼-스(페이스-급료)를 지급하는가 하면 7, 8년간 근무한 임시직원으 18,000환 밖에 안주고 있는 등 정실 인사를 한다고 보아지며 위

생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왜정시대부터 직장사수하고 있는데 노무원의 푸대접을 받고 있는 현상이라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2)수특지변 직원이 재무과에 근무하고 있는가 하면 징세비직원이 타과에 배치하는 등 모순도 있으니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3)동 지원의 처우문제인데 그 급료가 너무 얇은 관계로 본부 임시직원도 동 직원을 급사시(給使示)하는 경향이 있으니 차후 동직원도 월봉 3만원환선으로 인상하여 본청 임시직원이 동을 희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기 바라며 동직원은 각기 거주동에 배치하여 주기 바란다.

(4)동직원 봉급에 1호봉과 2호봉의 차가 너무 심하오니 300환 정도의 차를 두었으면 한다.

(5)동 처무규정에 의한 승급을 실시 않고 있으니 이를 실천하여 주기 바란다.

(6)남교동 사류지(沙溜池) 관리인은 7월 24일자 해임후 보충하지 아니한 관계로 사류지는 쓰레기 통이 되고 있는 형편으로 이 모든 점 인사 행정의 소홀을 지적 아니 할 수 없다.

(7)시규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심지어 이력서도 구비않은 사람을 발령한 사례도 있었으니 시정하기 바란다.

(8)지도계에서는 국채 소화의 사무타합 시찰, 사무연락이라는 명목으로 8개월 간에 걸쳐 무려 24회나 광주, 부산, 인천, 대전 등지의 관외 출장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탐지한 바 거개가 허위였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9)출장여비를 지불함에 있어서도 순서대로 지불토록 하기 바란다.

(10)군경원호회는 감사중 본의원등의 요구로 회비의 부과, 수입 등에 대한 내용의 개요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하등의 반응이 없음은 유감이다.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내용 짚은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할 것인 바 군경원호회의 책임자이신 시장님은 이 점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11)건설과에서는 민원서류는 간소령에 의거 신속처결하여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급수공사 청구 분에 대하여 가부 완결을 안짓고 있는 분이 있었다.

(12)건설과 그누 임시 기원(技員) 1인이 상사의 명령도 없이 자유재량으로 모 공사를 자행한데 대한 감사위원의 조사에 대하여 불손한 태도를 취한 사례가 있다.

(13)수도료 부과에 있어서는 계량기를 사용치않은 관계로 그 요금부과에 불공평한 점이 많이 있다. 최단시일내 시정 있기를 바란다.

(14)남교동 2호 시장 수선공사(양철 지붕)는 215,000환을 소요하여 수선한 지 일천한데 그 공사가 조루(粗漏-거칠고 빠짐)하였다. 이 공사의 준공검사원은 누구인가, 제공사의 검사원이 적당주의로 한다는 것이 세평이다.

(15)요즈음 수질검사를 앓고 있음은 시민보건상 위험천만이다.

(16)상수도 확장공사비 보조 삭감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라.

(17)막대한 재정을 소모하여 준설한 선창에 다시 오물 진개가 산적하여 있음은 집행부 측의 사전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18)각 동사무소의 소모품 지급은 2월 후로는 현금으로 영달토록 하라.

◇ 김상대 의원 보충보고

(1)상수도 확장공사에 있어서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수한 기술진을 배치토록 하라.

(2)확장계장은 흙관에 대한 연구를 철저하게하고 있어 찬용하는 바이다.

(3)확장공사용 용지매수대금은 집행부의 애로도 있겠으나 시급 지급토록 조치하기 바란다.

(4)수도 시설관계로 주교 2구동과 대성2구동 주민들간 소란을 일으킨 직원을 해면시킬 용의는 없는가

(5)관리계의 사무량이 너무 많다. 이를 조절할 수는 없는가.

(6)서무계의 문서정리는 가일층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7)용당동-문서보전대장의 번호가 누락되었다. 시정하기 바란다.

◇ 김경인 의원 보충보고

(1)직원 신원보증관계를 검토한 바 사망자를 그대로 방치한 곳이 있다. 시정하기 바란다.

(2)국세나 지방세의 배시율이 과중하기 않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3)군경원호회비 징수내용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 책임자인 시장님에게 조회한 바 있으나 하등 회답이 없다.

(4)교환대에 전화기 증설을 요망한다.

(5)경비전화를 가설하여 통신요금을 억제하기 바란다.

(6)감사도중 경찰서장으로부터 각 기관장에게 발송한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대 각종 입찰에 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선의로 해석하면 공정입찰을 지향한 것 같으나 돌이켜 생각하여보

면 야당입장자를 적발하려고 하는 수단이 아니겠는가.

(7)동 서기 배치에 있어서도 서장으로부터 통보가 있는 바 이 역시 인사문제 전반에 걸쳐 경찰서를 경유하는 것 같은 악인상(惡印象-나쁜 인상)을 주는 것이다.

(8)건설과의 상수도 확장용 토지매수 일람표 같은 것을 비치하여 두기 바란다.

(9)선창일대는 무허가 건축물이 산재하고 있는 바 이의 단속에 대한 상부 예규통첩을 무시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황을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 조양순 의원

(1)죽교동의 하수도 개수공사에 필요한 철거대상의 보상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바 사전 단속에 주력하여하였다면 여사한 사례가 없지 않겠는가.

(2)동 직원 중 유능한 직원은 본 청과 인사교류를 단행하여 주기 바란다.

(3)수도요금의 실지 징수액의 개선을 도모하라.

제2반대표

◇ 박두순 의원

(1)기류부 일체정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은 바 다소의 경비가 소모되더라도 조속한 시일내 완비하여주기 바란다.

(2)각종 민원서류는 신고접수 즉시 즉결주의로 임하라.

(3)각종 신분에 관한 증명을 발급할 경우에는 자체(字體)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불분명, 오자 등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

(4)호적 병무과에 비치한 전용 직인으로써 병사 사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

(5)재무과의 징세율은 대단히 양호하나 과년도 수입의 실적을 거양하여 주기 바란다.

(6)불납 결론 처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 그 이유로서, 시내 이동이나 생활난 등을 열거하였음은 부당한 조치이다.

(7)부동산 취득세 부과에는 권형(權衡)이 맞지 않다.

(8)차량세 부과에 있어서 자전거 326대, 우마차122대, 수거(手車-손수레) 5대라 함은 너무 가공적인 숫자다. 자전거의 차량검사 같은 것은 수시 단행하여



그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라.

(9)특별행위세 부과에 있어서는 각 업태별의 권형을 확립토록 노력하라.

◇ 김상태 의원

(1)납세필증며 발부에 있어서 정실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농후하다. 차후 유의하여 부기 바란다.

(2)특별행위세는 조정액의 5분의 1 밖에 징수안되었으니 가일층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3)공동수도사용료가 너무 저렴하다. 그리고 수도사용료의 1년이상의 체납자에게는 징수처분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

(4)호적병무과에서는 소모품 구입시 비교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니 그 이유여하

(5)호적병무과에 출입하는 일반시민들이 무단으로 공부(公簿)를 열람하는 사례 등 시정하기 바란다.

(6)도살장 건물 및 간수 사택의 수리를 요망한다.

(7)각 시장 사용료 징수에 있어 카드제를 폐지하고 영수증제로 하기 바란다.

(8)항동시장 후면의 가옥을 2동 가량 매수하여 확장할 수 있도록 신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여 주기 바란다.

(9)남교동 시장 직원은 4인임에 반하여 항동시장은 1인 밖에 안된다. 이의 안분 배치를 요망한다.

(10)간이도살장 설치 후보지로 동명동에 적지가 있다 하니 이것 역시 1차 추경에 계상하여 주기 바란다.

(11)미창 목포지점의 양곡보관상황을 조사하였던 바, 그 공로 지대하였음을 인지하여 산업위원회에서는 감사장을 증정할 것을 건의토록하였고

산업과 근무 김재석의 이에 대한 이면공적이 지대한 것과 그 두뇌의 민활함에 대하여 찬양하지 아니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것도 고려하였으면 한다.

(12)각 동은 예년에 비하여 현저히 진전되어 있었다.

(13)영해동을 감사할 적에 느낀 바이나 오물 진개 등을 처분할 장소를 마련하여 주기 바란다.

제3반대표

◇ 김성균 의원

(1)노동계-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상부에 건의하여 임금의 기준액을 결정짓도록 하라.

(2)사회계-재건축택과 국민주택의 건축자금을 조속한 시일내 회수토록 극력 노력하기 바란다.

(3)시립병원-사업장의 운영이 지극히 조홀(粗忽)하며 특히 시립병원은 엉망진창이다. 집행부는 이 방면에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4)공익전당포-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원활한 운영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의 증자에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5)도서관-법률계통 서적이 한권도 비치안되었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다. 도서관 확충에 대한 의결부의 과거부터의 요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신년도에는 기어 반영시켜 주기 바란다.

◇ 천철수 의원보고

· 교육관계

- 부패일로를 견고 있는 교육청 사무가 유능한 사무장이 부임한 후로는 비약적인 쇄신을 가져왔음이 역력히 나타났다. 그러나

(1)회계계를 제외한 일반사무는 불비한 서류가 허다하였으니 앞으로 단시일내 추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징세율은 양호한 편이다.

(3)교원의 봉급체불이 있었음은 유감이다.

(4)앞으로는 교육행정비보다 교비(校費) 집행에 치중하여 주기 바란다.

(5)사친회비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6)각 학교 양호교원은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여 주기 바란다.

◇ 김삼성 의장

- 산회 선언. 하오 12시 5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 4292년 12월 27일

시의원 김상태

시의원 조양순

작성자 서기 주도식

## 제102회 제5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의 : 단기4292년 12월 28일 상오 11시 35분
2. 폐의 : 단기4292년 12월 28일 하오 4시 50분
3. 장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회 : 의장 김삼성
5. 출석의원 :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5명  
결석 강영락 의원
6. 출석공무원 : 시장 박찬규 부시장 박종국  
총무과장 김귀식 및 각 과장

### 7. 의사 일정

#### 부의사항

- 정책질의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
- 제13회 시정감사 결과 전말보고

### 8. 토의사항

#### ◇ 이정권 의원

- 하오 1시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

#### ◇ 김상대 의원

- 회기가 앞으로 수일밖에 안남았다. 산적된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정회할 것이 아니라 의사를 진행토록 할 것을 개의

#### ◇ 김삼성 의장

- 중식 시간도 박두하였으니 일단정회 하였다가 하오 1시부터 속개할 것을 선언

◇ 김삼성 의장

- 속개 선언

· 정책질의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

◇ 김경인 의원

-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주도록 요청하였는데 여하히 하였는가.

◇ 집행부 측 답변

- 형편에 의하여 아직 서면으로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 박 시장 답변(정책질의)

(1)김상대 의원의 상수도 보조가 중단될 경우의 대비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실은 취임한 지 1개월여로 아직 그 방면에 상식을 못 가졌던 것이나 저 반 상경시 관계당국을 방문하여 절출한 결과 상수도 공사는 여하한 난관이 있더라도 완공시키겠다는 언질을 받은 바 있습니다.

(2)김창희 의원의 해수욕장 설치 문제는 본인 역시절실히 느끼고 있는 점으로서 차후 예산면에 반영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영해동 잔교 증설문제도 당국에 건의하는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공회당 건축도 역시 추진하겠습니다.

(5)김성균 의원의 질문하신 하(河) 행정에 대하여는 앞으로 연구하여 채장보단(採長補短)할 방침입니다.

(6)3대 공사외의 중요사업이라함은 우리가 초대 의회 당시부터 획책하여왔던 시가지 확장문제와 매립공사 완수로써 이루어질 중요 기업체 유치문제 등 일것인 바 여러 의원들과 손을 잡고 이 방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7)김경인 의원이 발언하신 시민의 담세율 경감책에 대하여는 본인이 재야시 부터 통절히 느끼고 오던 일로서 앞으로 적당한 시기로 보정하여 당국에 절충하여 시민의 복지 향상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 건설과장 답변

- (1)상수도 공사 설계변경이 심한 이유를 물으셨으나 중간에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삼학도 공사 추진문제에 대하여는 해무청 소관사업이나 그 내용을 축항사무소에서 발취하여 왔으니 참고로 알으실 의원께서는 일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역전 하수구 준설은 목하 작업중입니다.
- (4)1호선 포장공사문제는 종전부터 당국에 절충하여 왔었으나 세멘트 보급을 못받고 있는 관계로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 (5)정응표 의원이 발언하신 상수도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국고보조만 원활하면 단시일내 완공될 것입니다 만은 보조액이 삭감된 이유는 국내 예산도 수시변동이 있게 되는데 향차 외국의 원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이 오게 된 것이나 2억5천만환은 틀림없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 (6)격일급수제 폐지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부로서는 심사숙고하고 있으나 이는 명춘(明春) 한발(旱魃)기에 대비하는 부득이한 방법으로서 가압양수장이 완공되기까지(1월중) 인내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 (7)연동도로 확장공사 문제도 실지 1억 환이 있어야 해결되는 것으로 시 자체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 (8)내항 준설공사문제는 어떠한 압력이 개재된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9)무허가 건축물은 명춘에나 적의조치 하겠습니다.
- (10)영란등(鈴蘭燈) 요금은 신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 (11)김남진 의원께서 배시된 예산도 소모 못시킨다는 말씀이 계시나 금년도 예산에 전액 채무 확정을 지어보았으며 그 공정도 착착 진행중에 있습니다.
- (12)청부업자 감독은 단단히 하려합니다.
- (13)조양순 의원이 말씀하신 역전 포장도로문제는 신년도 예산에 계상하려 합니다.
- (14)죽교 1, 2구동 및 서부교의 급수선 문제는 천오백만 환의 예산이 있어야 포설케 될 것으로 중앙당국에 보조신청 중에 있습니다.

◇ 박찬대 사회과장 답변

- (1)김창희 의원이 말씀하신 시립병원운영문제인데 본도 조 문사국장의 알선

으로 외과, 내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의 4과 전문의 실력있는 의사진을 초빙하여 신년도부터는 시민의 참된 의료기관이 되도록 획책하고 있으며 독립채산주의로서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2)도서관도 금년부터는 무료로 봉사하겠으며 관장제도를 없애고 직원 1인을 배치토록 하겠으며 법률 관계서적도 금년에는 비치하려 합니다.

(3)공익전당포 자금 증자문제는 앞으로 당국에 절충하여 천만 환 범위 내로 노력하겠습니다.

(4)유달산 관광지대의 공동변소 설치문제는 신년도 예산에 우선 조치하겠습니다.

◇ 손점수 농림주무 답변

(1)남교동 공설시장 복구문제는 1천7백5십만 환의 영달을 얻게 되어 금명간 입찰에 부하겠습니다.

(2)유달산 녹화 및 관광시설문제 등은 장차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태 의원 질문

- 목포제빙회사에서 부영잔교에 이르는 사이에 무허가 건축물이 수십호 있는데 직접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이 아닌 것이다. 이를 철거시켜라.

◇ 정응표 의원

- 시청에 과거에도 직원기리 파벌을 만들어 상호 모략중상 등 좋지 못한 예가 있었는데 박 시장 취임 후 또 다시 이러한 씨-클이 태동한 것 같으니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점 유의하시어 통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균 의원

(1)저반 본 의원의 정책질의에서 13만 시민의 대변으로 그 시정 방침을 듣고자 했던 것인데 시장님은 이것을 감정으로 여기시는지 답하여 주기 바란다.

(2)건설과장에게 물졌는데 산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비 보조를 교섭하여 달라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3)수도 요금징수에 있어서 왜정시대에는 양수기가 있어서 공평한 요금을 부과하였다고 보아지는데 지금은 이것이 없는 관계로 용수의 무단 낭비와 요

금 부과의 걱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총무과장에게 묻겠는데 연말 인구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박 시장 답변

(1)정응표 의원이 말씀하신 직원 상호간의 인화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김성균 의원이 말씀하신 정책질의로 인한 감정운운은 언어도단입니다.

◇ 김 총무과장 답변

- 연말 인구조사는 각 동을 통하여 엄밀히 착수하고 있는 바 금년말도 상당수가 증가되리라고 예상됩니다.

◇ 이 건설과장 답변

- 연동도로 확장문제는 전력을 경주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재정이 그렇게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김상대 의원 질문

- 공회당 건축에 있어서는 광주 노 시장은 취임초부터 중앙에 절충하여 5천만 환의 보조를 얻어 착공한다 하는데 목포도 이와 같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란다.

◇ 김경인 의원 질문

- 저번 정책질의에서 인사문제가 논의되고 지상보도된 그대로 발설을 한 것이라 믿어지며, 항간에 인사발령은 시장이 하고 금전거래는 엄한(사투리-영똥한) 사람이 한다는 풍문이 떠돌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눈물겨운 동정도 구하고 상식 이외의 인사발령은 나지 않도록 시장에게 요청하여 왔는데 요즈음 시중의 여론은 제2차 인사과동이 있게 되고 3천여명의 그 직을 물러나게 되며 그 대상으로는 경찰서에서 성분조사 결과 근야(近野-야당에 가까움) 계통을 모조리 색출한다 하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목포시에 민주당은 살 수 없는 곳이 될 않겠는가.

◇ 천철수 의원 질문

- 휴관을 포설할 적에 수압시험을 재차한다고 하였는데 이의 실시여부 여하



◇ 정응표 의원

- 홈관 회사와의 계약에 3년간 회사에서 보증하기로 되어 있는 바, 포설시부터 인가, 불연(不然)이면 송수 후부터 3년인가 그 한계 여하

◇ 조양순 의원

- 농촌복리 문제인데 죽교 5구동에 전기 가설 추진을 요망한다.

◇ 김창희 의원

- 도서관 확충에 대한 견해를 다시 말하여 주기 바란다.

◇ 이춘흠 건설과장 답변

(1)천 의원이 말씀하신 홈관 수압시설은 현장에서 발취검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정응표 의원이 말씀하신 보증한계는 통수 후 3년간입니다.

◇ 김 산업과장 답변

- 조양순 의원이 말씀하신 건에 대하여는 아직 부임한 지 일천하여 도시의 농촌을 구성하질 못하고 있으니 점차 실정을 파악하여 시장님의 의도를 받들어 추진하여 나가려 합니다.

◇ 박 사회과장 답변

- 김창희 의원이 말씀하신 도서관 운영은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 시장 답변

- 제2차 인사이동은 불원 있을 것으로 알아주시고, 인사조치는 어디까지나 행정수행상 필요할 때 단행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인 의원

- 야당계열에 가깝다고 하여서 해면조치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 박 시장 답변

- 그러한 문제를 직답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김삼성 의장

- 대 집행부 질의 종결 선언

· 제13회 시정감사 결과 전달보고

◇ 박 사회과장 답변

(1)김성균 의원이 말씀하신 노동자 권익보장문제에 대하여는 앞으로 세심 주의와 연구를 거듭하여 유루(遺漏)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재건축택 ald 국민주택 자금 회수에 대하여는 그 체납된 원인을 규명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각오입니다.

◇ 박 재무과장 답변

(1)과년도 분 미정리된 세금에 대하여는 거(去) 10월부터 책임액과 책임건수를 담당하여 총역량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불납결손액과 납세필 증명 발급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3)특별행위세는 출납폐쇄기까지는 완징하겠습니다.

(4)수도료 부과에 있어서는 건설과와 합의하여 권형을 위하겠습니다.

◇ 이 건설과장 답변

(1)수질검사는 연2회 하기로 되어 있으나 금년 중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제 공사가 연말까지 미료된 이유는 용지매수에 관련되어 그리하였으나 채무확정은 지어놓았습니다.

(3)제 공사의 준공검사는 직접 책임자가 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4)민원서류는 접수 즉시 직결처리하겠으며 미결분은 추완토록 하겠습니다.

(5)수도계 임시직원 이야지가 감사원에게 불손한 태도를 취하였음은 본인의 감도굴충분에 기인된 것 같습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중에 있으니 선처하겠습니다.

(6)남교동 사유지 관리인은 현재 물색중에 있으니 적임자를 재기용하겠습니다.

(7)관리계 직원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적당히 증원조치 하겠습니다.

(8)김경인 의원이 말씀하신 선창의 무허가 건축물은 명춘에나 조치하겠습니다.

◇ 박 시장

근 1개월간에 걸친 제 의원들의 감사결과 보고와 그 동안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할 바를 시정하고 실천할 바를 실천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 이 교육사무장 답변

(1)보건수당과 봉급 체불문제는 다액을 일시에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점차적으로 해결짓도록 하겠습니다.

(2)교비 집행에 치중하시라는 말씀은 사무적으로 점차 시정하겠습니다.

(3)양호교원 채용에 있어서는 신중 자격을 검토후 결함이 없는 사람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 김백호 호적계장 답변

(1)박두순 의원이 말씀하신 기류부 조속완비에 대한 문제는 총역량을 경주하여 시급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민원서류 처결도 접수 즉시 하겠습니다.

(3)호병고 전용직인의 병사사무에도 적용하도록 하시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신임과장이 취임하시면 도 당국과 절충하여 관계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4)김상태 의원께서 지적하신 물품 구입시 비교견적서를 첨부하시라는 말씀에 대하여도 차후 각별 유의하겠습니다.

◇ 정응표 의원

- 각 과장님의 답변 태도를 평하건대 한심스럽기 한량없다. 거개가 동문서답 격이요 모호하기 짝이 없다.

앞으로는 각별 주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인 의원

- 토론 종결 동의 재청...삼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 가결

◇ 김경인 의원

- 정응표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각 과장의 답변은 수시 임기응변식의 답변이다. 앞으로 의회에 녹음기 한 대를 설치하여 년 2, 3회씩의 중요 회의시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동의 재청...삼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 가결

◇ 김상태 의원

- 시정감사 결과 보고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 미창 목포지점장과 목포축항사무소장에게 감사장을, 산업과 그누 김재석에게 표창장을 수여토록 할 것을 동의 재청...삼청

표결 결과 만장일치 가결

◇ 김삼성 의장

- 산회 선언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 날인함.

단기 4292년 12월 29일

시의원 박두순, 김일섭

작성자 서기 주도식